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3428077호(2024.03.05~2027.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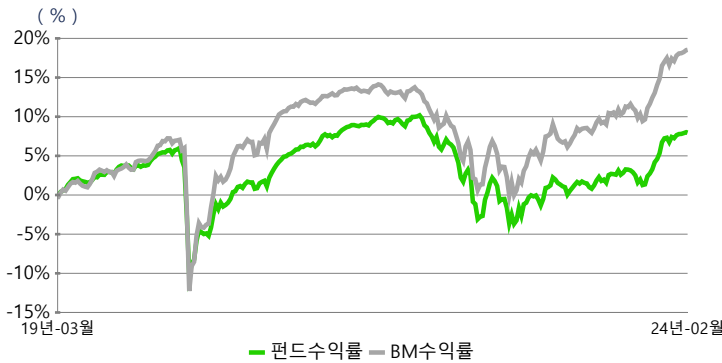
2024년 02월 29일

## 펀드 목적 및 전략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 투자신탁[H]는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 중 선순위 담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입 증대 및 자본 이득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 펀드는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는 한계지를 실시합니다.

담보 채권이란 유가증권의 부도에 대비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선순위의 의미는 다른 후순위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담보 채권은 동일 기업이 발행한 다른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펀드 운용성과



\* 최초 설정일이 2019.03.08인 Class C 수익률 기준입니다.  
 \* 운용성과, 수익률 그래프, 누적 수익률의 성과는 세전 수익률로 미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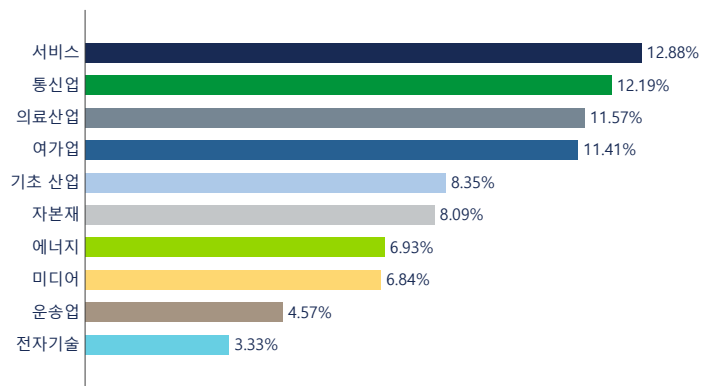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설정 이후
Class A	0.10	3.40	4.79	6.80	2.51	8.05
Class Ae	0.12	3.48	4.96	7.15	3.53	9.81
Class C	0.07	3.31	4.61	6.43	1.45	7.96
Class C-P	0.10	3.41	4.82	6.86	2.67	6.89
Class C-P2	0.11	3.43	4.86	6.94	2.91	8.13
Class C-P2e	0.13	3.49	4.99	7.22	3.71	9.75
Class C-Pe	0.13	3.48	4.97	7.17	3.59	10.78
Class C-W	-	-	-	-	-	-2.58
Class Ce	0.11	3.43	4.87	6.96	2.97	9.67
Class S	0.15	3.52	5.02	7.26	3.86	9.75
Class S-P	0.14	3.52	5.05	7.42	4.18	10.23
BM	0.43	3.98	6.57	10.75	5.89	18.54

\*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위 10개 보유 종목

종목	구성비율(%)
KCA Deutag	1.87
Travellex	1.78
LifePoint Health, Inc.	1.66
Merlin Entertainments	1.44
Frontier Communications Corp	1.39
CGG	1.36
Tenet Healthcare Corporation	1.34
Center Parcs	1.29
Masmovil	1.17
American Airlines Inc.	1.15

## 상위 10개 업종별 보유 비중



\* 업종별 보유 비중은 2024.01.31 기준입니다.

## 지역별 보유 비중

지역	구성비율(%)
북아메리카	53.18
유럽	45.31
기타 지역	1.51

\* 지역별 보유 비중은 2024.01.31 기준입니다.

## 신용등급별 보유 비중

신용등급	구성비율(%)
BBB	1.92
BB	30.85
B	59.99
CCC 이하	3.72
무등급	3.53

\* 신용등급별 비중 / 신용등급별 보유 비중은 2024.01.31 기준입니다.

## [투자시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3428077호(2024.03.05~2027.03.04)

2024년 02월 29일

펀드개요	
• 순자산*	36억원
• 기준가	1079.63원
• 펀드설정일	2019.03.08
• 신탁업자	하나은행
• 집합투자업자보수(연)	0.150%
• 판매회사보수(연)	1.000% (C), 0.300% (C-Pe), 0.500% (Ce), 0.200% (S-P), 0.250% (S), 0.320% (Ae), 0.650% (A), 0.260% (C-P2e), 0.520% (C-P2), 0.600% (C-P), 0.000% (C-W)
• 신탁업자보수(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연)	0.010%
•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 선취판매수수료	0.350% (Ae)
• 후취판매수수료	(S) 0.150
※ 클래스 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 0.15% 이내	
• 환매수수료	없음
• 환매대금지급기준	17시 이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벤치마크	ICE BofA Global High Yield Secured Bond (BB-B) - TotalReturnHedgedUSD(T-1) X 90% + MMI_CALL X 10%
• 분배기준일	
• 분배금 지급일	

\* 합성총보수 Class C 기준 연1.791%, Class C-Pe 기준 연1.092%, Class Ce 기준 연 1.292%, Class S-P 기준 연 0.990%, Class S 기준 연 1.040%, Class Ae 기준 연 1.112%, Class A 기준 연 1.442%, Class C-P2e 기준 연 1.052%, Class C-P2 기준 연 1.312%, Class C-P 기준 연 1.390%, Class C-W 기준 연 0.792%

\*2023년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Class C 기준 연1.101%, Class C-Pe 기준 연1.000%, Class Ce 기준 연 1.107%, Class S-P 기준 연 0.151%, Class S 기준 연 0.098%, Class Ae 기준 연 0.100%, Class A 기준 연 0.102%, Class C-P2e 기준 연 0.101%, Class C-P2 기준 연 0.102%, Class C-P 기준 연 0.100%, Class C-W 기준 연 0.130%

### 투자자 유의사항

- 이 운용보고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거나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고서의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내용의 무단복사, 사진복사 또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해지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주요종목, 국가별 비중은 운용펀드 내 비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



BARINGS.COM

베어링자산운용

### [투자시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